

간호대학 QS 34위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난 7월 12일(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개최된 ‘간호대학 QS 34위 기념 국제학술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2019년도 서울대학교 세계선도 중점학과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향후 간호대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QS평가 상위에 있는 북미, 유럽과 아시아 대학의 학자들을 초청하여 연구진작 전략과 대학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개최됐다.

국제학술대회는 ‘Stepping Up to the Future of Nursing Initiatives’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최희승 학과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방경숙 학장의 환영사로 시작을 알렸다. 방경숙 학장은 환영사에서 “우리대학이 국내대학 가운데 전례 없는 QS 34위를 달성함에 따라 이를 기념하는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참석하신 많은 귀빈과 더불어 이 순간을 위해 노력한 우리 대학 교수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동문님과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노동영 서울대학교 연구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간호대학은 현재 간호분야의 연구와 발전에 선두에서 서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서울대학교의 가장 큰 자산 가운데 하나이다.”라며, “간호대학의 성취를 축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임지영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장은 “QS 34위라는 성과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우수한 간호교육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모두 이 성취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미래 간호교육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축사를 전하였다.

1부 프로그램의 포문을 연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서은영 교무부학장은 “Research achievement and next step for the fu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를 주제로 간호대학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선보였다. 이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의 Dr. Patricia D’Antonio, 그리고 영국 킹스칼리지의 Dr. Louise Barriball이 간호교육과 연구수행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각 대학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 지 발표하였다.

2부 프로그램에서는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Dr. Cheng Kin Fong Karis와 국립 타이완 대학의 Dr. Wen Yu Hu가 아시아권에서 간호교육기관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각 대학의 전략을 주제로 강연을 이어갔다.

각 연자가 소속되어 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와 영국 킹스칼리지는 각각 QS 세계대학평가에서 1위와 2위를,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와 국립 타이완 대학교는 각각 QS 세계대학평가에서 아시아 1위와 4위에 등극한 우수간호교육기관이다.

이번 국제학술대회에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QS 34위 달성을 축하하고, 국내 간호대학들이 세계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본부 보직자와 명예교수를 비롯한 전국 간호대학장 및 학과장, 각종 단체장과 의료기관 관계자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해가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이번 학술대회를 발판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것을 기대해 본다.



간호대학 소식 01

교수동정 주요 보직현황

1. 2019. 9. 1.자 명예교수 추대

- 대상자: 이인숙 교수

2. 2019. 9. 1.자 승진(조교수 → 부교수)

- 대상자: 강자현 교수

간호대학 소식 02

직원동정

1. Shine Center

- 사무국장 장소영(2019. 9. 1 임용)

2. 시설관리반

- 청소 김종대(2019. 5. 1 발령)

간호대학 소식 03

연구실 탐방 지역사회간호학연구실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지역사회간호학 연구실은 윤주영 교수님과 지역사회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이 모인 연구실이다. 지역사회간호학 연구실에서는 일차의료와 커뮤니티 케어, 장기요양, 학교보건 등 지역사회간호영역 별로 다양한 현안과제에 대한 연구와 정책 제안을 수행하고 있다.

윤주영 교수님은 주로 지역사회 노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질 향상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책임연구자로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인간중심 치매 케어 교육을 위한 스마트 기기 활용 하이브리드 모듈 개발 연구와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 용역 사업이다.

먼저 한국연구재단 신진연구 지원사업으로 2017년부터 노인요양시설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인간중심 치매 케어(Look At Me as a Person: LAMP)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증가하고 있는 치매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이 의미 있는 거주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본주의적 관점 바탕의 인간의 존엄성을 기반으로 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간중심케어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요양시설 서비스 제공자(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간중

심케어(person-centered care) 실무교육에 적합한 하이브리드 교육 모듈 및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요양시설 치매케어와 관련한 국내외 문헌 및 실무 가이드라인 검토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완료하여 프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하였고, 스마트폰으로 접근 가능한 온라인 교육 자료 및 오프라인 교육 자료 하이브리드 모듈 개발이 완료된 상태이다. 현재 LAMP 프로그램 적용 중재 연구를 위한 프로토콜을 개발 중이며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Pilot study를 앞두고 있다.

두 번째는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교육 용역 사업이다. 방문건강관리인력은 최근 지역사회 보건복지 분야의 화두인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정책의 핵심 기반 인력이다. 현재 동 주민센터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노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방적 보건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방문간호사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 교육 과정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근거 기반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방문간호 인력의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와 지역사회 중심 돌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 기반 노인 허약(frailty) 관리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 및 향후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또한 매해 여름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과 함께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과정을 운영하며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는 간호사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호대학 소식 04

행복한 나눔 간호대학 미주동문 발전기금 전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수향(72줄) 동문이 미주동문들의 모교 발전기금 전달 소식을 알렷다. 미국 남가주, 시카고, 워싱턴DC 주위 동문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이번 발전기금은 \$ 5100.00 가량으로, 미주 간호대 동창회(남가주 간호대학 동창회 회장 양수진, 84줄)이름으로 간호대학에 전달되었다.

김수향(72줄) 동문은 “홍여신 교수님의 자서전을 읽고, 우리 삶의 뒷받침이 되어준 간호대학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하며, “미주 동문들의 마음이 담긴 기금이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간호대학 방경숙 학장과 자서전의 주인공 홍여신 명예교수는 “먼 타국에서도 모교를 잊지 않고 마음을 모아준 미주 간호대학 동문들의 참여와 열정에 감사드리며,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간호대학 소식 05

행복한 나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첫 졸업생 김현희(63줄) 동문 발전기금 쾌척

지난 6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현희 동문(63년 줄)이 간호대학 발전기금으로 오천만원, 간호대학 동창회 교육연구재단에 이천만원을 기부하여 도합 칠천만원을 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1회 졸업생인 김현희 동문은 이전에도 간호대학 발전기금으로 오천만원, 동창회 교육연구재단에 팔천만원을 전달한 바 있어, 이번 기부를 포함하면 총 이억 원(간호대학 발전기금 일억, 동창회 교육연구재단 일억)을 모교에 기부한 것이다.

이날 김현희 동문은 방경숙 학장, 박정호 명예교수, 그리고 허영 동창회장과 함께 간호대학의 곳곳을 둘러보며 간호학과 함께한 본인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현재 간호대학 1층에 위치한 간호학 박물관에는 김현희 동문과 박정호 명예교수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석사과정 첫 졸업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김현희 동문은 “국내 간호교육을 선도하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앞으로는 세계 최고의 간호대학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기부에 대한

뜻을 밝혔다. 방경숙 학장은 “모교를 위해 기부를 지속해 오시는 김현희 동문의 마음과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글로벌 간호교육에 앞장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으로 거듭나겠다.”고 화답했다.



간호대학 소식 06

국제교류 2019학년도 국제협력본부지원 미국 UIC 간호대학 하계 연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부생 9명(최재연, 강민지, 김채연, 남규미, 민현지, 박여림, 심서영, 이윤하, 이한슬)이 참석한 2019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 하계 연수프로그램이 7월 17일(수)부터 8월 9일(금)까지 약 4주간 진행되었다.

3일의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첫 주차에는 다양한 지역사회의 보건을 주제로 Global Health 강의를 수강하면서 시카고 지역사회 곳곳을 둘러보며 현장 견학을 하였다. 연수프로그램 후반부에는 University of Illinois Hospital & Health Sciences System에서 실습을 하며 현지 간호사들과 교류하고 임상 환경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었다.

본 프로그램은 간호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으로, 2012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과 협약을 맺으며 시작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매년 여름방학 동안 진행되며,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OIA)를 통해 항공료 및 체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간호대학 소식 07

국제교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MOU 체결

방경숙 학장, 서은영 교무부학장, 김정은 교수, 김혜원 교수가 9월 11일(수)부터 12일(목)까지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와 Johns Hopkins University에 방문하였다.

본 방문을 통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은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Nursing, 그리고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Nursing과 '다각적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University of Pennsylvania School of Nursing은 세계 간호대학 순위 1위(QS 랭킹),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Nursing은 세계 간호대학 순위 4위 대학으로(QS 랭킹), 체결한 협약을 통해 향후 대학 간 협력관계가 본격화되면 교수와 학생교류가 활성화되고, 학술교류도 활발해져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대학 소식 08

국제교류 미국 UIC 간호대학 하계 연수 발표회

9월 16일(월), 9월 20일(금) 이틀에 걸쳐 '2019년 미국 일리노이 주립 대학(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UIC) 하계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발표회'가 우정원과 간호대학 강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하계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한 간호대학 학부생 9명(최재연, 강민지, 김채연, 남규미, 민현지, 박여림, 심서영, 이윤하, 이한슬)은 전체 학생들 앞에서 UIC 간호대학에서 체험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선후배 및 동기들에게 연수 경험을 공유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09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 - 산림치유지도사 2급 과정

간호대학 주관으로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과정이 벌써 5기를 맞이하였다.

산림치유지도사란 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등 산림을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기획·개발하여 산림치유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가 자격의 전문가를 말한다. 현재 서울대학교를 포함한 전국 16개의 기관이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간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산림치유지도사 2급 과정은 산림청으로부터 인증받은 교육과정으로서, 산림과 보건 분야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교수진으로부터 제공되는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명사특강 등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대학의 이인숙 교수가 주임교수를 담당하고 있으며, 김성재, 방경숙, 서은영, 고진강 교수가 교수진으로 참여하고 있다.



간호대학 소식 10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

지난 5월, 스승의 날을 맞이해 오랫동안 간호대학과 간호학을 위해 힘써주신 명예교수님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속적인 학교 발전에 대한 고견을 나누기 위해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홍여신 명예교수를 포함한 총 9명의 명예교수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으며, 방경숙 학장을 비롯한 4인의 학장단이 함께했다.

이번 명예교수 초청 간담회에서는 QS (Quacquarelli Symonds) 세계대학평가 34위에 빛나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현황 및 제반 사항에 관해 논의하며, 학교 발전을 위해 다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간호대학 소식 11

2019학년도 1학기 교수-학생 간담회

5월 13일(월) 간호대학 2층 교수회의실에서 교학간담회를 진행하였다. 학장단과 학생회 및 학년대표, 행정실 관련업무 담당자, 조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방경숙 학장의 인사말로 시작하여 학생회와 학생부학장이 차례로 활동을 보고하였다. 뒤이어 학생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개선방안을 모색하였고, 간호대학 측에서는 지난 학기 학생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수-학생 간담회를 통해 학생들의 편의와 학교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함께 힘쓸 것을 약속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2

서울대학교 총장단 간호대학 방문

5월 20일(월) 서울대학교 총장단이 연건캠퍼스에 위치한 간호대학을 방문했다. 이번 총장단의 방문은 간호대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오세정 총장과 여정성 기획부총장, 신석민 교무처장, 강준호 기획처장, 성제경 교무부처장 이상 5인이 함께하였다.

방경숙 학장을 비롯한 간호대학 교수진과 교직원들은 총장단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간담회는 방경숙 학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오세정 총장의 답사가 이어졌다. 이어 방경숙 학장이 간호대학의 우수한 교육 및

연구 성과 등을 보고하였다.

이날 간호대학은 매주 금요일 기본간호학 실습을 위해 연건캠퍼스로 이동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한 2학년 학생들을 위한 '2학년 기본간호실습실 관악캠퍼스 설치'와 함께 간호대학 모든 구성원들의 염원인 '간호대학 관악캠퍼스 이전', 그리고 간호대학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간호대학 교원 확충' 등에 대한 간호대학의 입장을 총장단에게 전하였다. 간담회 종료 후 간호학 박물관과 샤인센터 투어를 끝으로 총장단 방문일정이 종료되었다.



간호대학 소식 13

2019 취업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

5월 23일(목)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103호 강의실에서 졸업 및 취업예정자들을 위한 취업대비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개최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간호대학 4학년 재학생 27명이 참석하였다. 취업대비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리더로 활약해 온 송경자 서울대학교 병원 前 간호본부장이 강사로 나서 자리를 빛냈다. 신입간호사 취업을 위한 면접전형 대비 전략 강의, 시뮬레이션 상황 제시, 적절한 면접 복장 안내 등으로 구성된 본 프로그램에 대해 학생들은 “짧지만 유익한 시간이었다”, “이런 기회가 더 많았으면 한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간호대학 소식 14

이인숙 교수 퇴임 전 마지막 수업

지난 6월 4일(화), 이인숙 교수(지역사회간호학 전공)의 학부 마지막 수업이 간호대학 본관 103호에서 진행되었다. 이인숙 교수의 마지막 수업을 기념하기 위해 방경숙 학장과 채선미 학생부학장, 최희승 학과장을 비롯하여 윤주영 교수가 함께 자리하였다.

방경숙 학장은 “항상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인숙 교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며 이인숙 교수와 함께한 추억을 회상하였다. 윤주영 교수는 “언제나 교단에 있을 것만 같은 이인숙 교수님이 간호대학을 떠나신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며 눈물과 함께 아쉬움을 전하였다. 윤주영 교수는 학부시절 이인숙 교수에게 지역사회간호학 수업을 들은 첫 제자 중 한명으로 현재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인숙 교수의 마지막 지역사회간호학2 수업을 수강한 3학년 학생들도 정성껏 준비한 감사영상과 함께 롤링페이퍼를 이인숙 교수에게 전달하였다.

수업을 마친 후 마지막으로 이인숙 교수는 역량이 뛰어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어서 행복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신에 대한 믿음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우리대학 학생들이 되길 바란다고 학생들을 응원하였다.



간호대학 소식 15

2019학년도 하계 교수 Workshop

6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 3일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교수회의실과 강원도 속초 일대에서 ‘간호대학 교과과정 개편 확정 및 운영방안 검토’를 주제로 2019년도 하계 교수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간호대학 교수 20인과 조교 4인이 참석한 가운데 방경숙 학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본 워크숍은 최희승 학과장의 ‘세계대학평가 순위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서은영 교무부학장의 ‘교과과정 개편 확정 및 향후 운영방안’ 발표와 열띤 논의로 진행되었다. 이날 점심에는 퇴임을 앞둔 이인숙 교수에게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오후에 이어진 일정에서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장정옥 위원을 초청하여 ‘청렴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선택’ 특강을 개최함으로써 기관 내 구성원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강원도 속초로 이동하여 진행된 25일부터 26일까지의 일정에서 참석자들은 속초 동대전망대, 속초 8경 버스투어, 케이블카 탑승 및 산책 등을 통해 단합을 도모하였으며,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간호대학 교과

과정 운영방안’, ‘세계대학평가(QS Ranking) 순위향상을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워크숍은 앞으로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내 교수 연구 활동과 국제 협력 지원, 개편된 교과과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정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간호대학 소식 16

[보건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공개강좌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전국 간호대학 교수 100여명을 대상으로 7월 8일(월) ~ 7월 11일(목), 총 4일간 간호대학 본관 3층 샤인센터 (Simulation based, Humanity Integrated Nursing Education Center, SHINE Center)에서 공개강좌를 개최하였다.

공개강좌 첫날인 7월 8일(월) '프로그램 A'에서는 '안전한 감염관리를 위한 개인보호구 착용의 워크숍'을 주제로 강자현 교수가 감염관리 실습교육을 진행하였다. 신종전염병 감염관리에서의 개인보호구 착용의 문제, 격리병실 개인보호구 착용의 시뮬레이션 및 디브리핑, 개인보호구 착용의 시뮬레이션 모듈 개발 실습 등 안전한 감염관리를 위한 깊이 있는 워크숍이었다.

7월 9일(화) '프로그램 B'에서는 김성재 교수가 Psychodrama, Sociodrama & Role Play의 철학행위기법 이해에 대해 강의하였으며, 자기이해와 공감훈련을 활용하여 간호교육에서 Action methods의 적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7월 10일(수) '프로그램 C'에는 '시뮬레이션 간호교육 방법의 전공별 적용의 실제'를 주제로 서은영 교수와 채선미 교수, 최희승 교수가 각각 성인간호학, 아동간호학, 정신간호학에서의 시뮬레이션 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시뮬레이션 간호교육의 기초부터 표준화 환자 활용 시뮬레이션 교육, 그리고 태블릿 기반 의사소통 교육까지 최신 시뮬레이션 간호교육의 동향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공개강좌 마지막 날인 7월 11일(목) '프로그램 D'에서는 서은영 교수와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안선영 간호교육파트장, 이미정/정진영 교육간호사가 '간호학생 실습역량 증진을 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주제로 실제 사례를 적용한 효과적인 교육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의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한 샤인센터에서 진행되어 더욱 새롭고 의미 있는 교육이었으며, 간호교육과 연구의 양적·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간호대학 소식 17

2019 간호학캠프 개최

7월 31일(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에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2019 간호학캠프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간호학문을 탐구하고 직·간접적으로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고교생들에게 제공하여 간호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고취시키고, 진로 탐색 및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19 간호학캠프는 방경숙 학장의 환영사와 채선미 학생부학장의 회사를 시작으로 첫시간은 간호의 정체성, 간호대학 전공 커리큘럼, 간호대학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서은영 교무부학장, 채선미 학생부학장, 최희승 학과장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간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생들이 선발된 만큼 참여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하고 소감을 표현하는 등 특강 내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강이 종료된 후에는 참여자들에게 간호대학 재학생들과 자유로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며, 간호술기를 직접 실습해보고 시뮬레이션 센터와 각종 실습실 등을 함께 돌아보는 간호대학 투어가 제공되었다. 간호술기실습은 참여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피부상처간호와 봉대술을 주제로 운영되었다.

간호술기실습을 체험한 참여자들은 “막연히 간호사를 꿈꾸었던 자신의 적성과 진로희망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할 수 있어서 만족스러웠다.”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하였다.

교내 다양한 장소를 돌아보는 간호대학 투어는 각 실습실에서 간호대학 재학생들이 제시하는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간호대학 투어를 통해 참여자들이 방문한 장소는 시뮬레이션 센터, 간호학박물관, 지역사회간호학실습실, OSCE CENTER, 간호관리학실습실, 정신간호학실습실 등으로 참여자들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최신시설을 체험할 수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고, 간호학박물관을 추후 재방문하고 싶다.” 등의 소회를 표현하였다.

2018 간호학캠프에 이어 성황리에 종료된 2019 간호학캠프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물리적 자원을 바탕으로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고교생들에게 간호와 관련된 기초 지식과 실습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진로 탐색과 계획 수립, 동기 부여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간호대학 소식 18

2019학년도 초·중등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 전공과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수원이 주관하고, 간호대학에서 함께 운영하는 2019년도 초·중등 1급 정교사 및 보건교사 자격연수가 7월 29일(월)부터 8월 9일(금)까지 실시되었다.

서울 및 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건교사 123명은 첫 주(5일, 총 30시간) 동안 관악캠퍼스 사범대학에서 기본소양 및 교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를 받았으며, 나머지 2주(10일, 60시간)는 연전캠퍼스 간호대학에서 1급 보건교사로서의 교과지도능력 함양 및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이해,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을 받았다.

현장 교사의 요구를 교과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편성된 이번 초·중등 1급 보건교사 자격연수는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진을 초빙하여 교과 관련 최신 이론 및 보건교육의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학생 건강생활 지도를 위한 건강사정 및 통상질환 관리,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등의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커리큘럼을 운영하였다. 연수에 참여한 보건교사들은 이번 자격연수를 통해 1급 보건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을 쌓아 미래 대한민국의 주축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보건교육에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간호대학 소식 19

2019학년도 제 2차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 협의회

8월 28일(수) 함춘원에서 서울대학교병원 간호부문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이경이 간호본부장의 개회로 회의를 시작하여 간호대학과 간호부문에서 지난 학기 활동을 차례로 보고

하였다. 2학기에 있을 양 기관의 행사 및 교육프로그램에 상호 협력을 약속하며 간호부문과 간호대학의 발전을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호대학 소식 20

제 73회 후기 학위수여식

2019년 8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71동)에서 제 73회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학사 910명, 석사 1,047명, 박사 681명 등 총 2,665명이 학위를 받았다.

학위수여식사를 통해 오세정 총장은 졸업생들에게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항상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 여러분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선택들을 했으면 한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며 좋은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을 믿고 그 선택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축사는 신수정 총동창회장과 노정혜 한국연구재단이사장이 맡았다. 신수정 회장은 감사하고 베풀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계속 추구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노정혜 이사장은 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기계발로 나아가며 변하지 않는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계속 추구하길 바란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제 73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간호대학은 학사 7명, 석사 9명, 박사 11명, 도합 27명이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날 식장에는 방경숙

학장과 서은영 교무부학장, 채선미 학생부학장과 최희승 학과장이 함께하여, 다년간의 노력 끝에 학위를 받은 졸업생들의 열정과 노고를 격려하고 축하하였다.

우리 졸업생들이 앞으로도 지식 탐구와 실험정신을 통해 간호의 발전을 선도하고 겨레의 길을 밝히는 세계 인재로 거듭나길 기원해 본다.



간호대학 소식 21

2019학년도 학부 학생논문집 전달식

지난 9월 3일(화), 관악캠퍼스 220동에서 4학년 학생들의 ‘학부 학생논문집 전달식’이 있었다. 이번 학생논문집에는 간호중재 설계와 수행, 텍스트마이닝 기법 등의 새로운 간호정보 기술 적용, 재난대응과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 등 간호대학생들의 다양한 탐구정신을 엿볼 수 있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

논문전달식에는 4학년 1학기 간호연구실습 교과목 담당교수였던 허익수 교수가 함께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참신한 아이디어와 연구에 대한 열정으로 빛어진 이번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간호현장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연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대해 본다.



간호대학 소식 22

2019학년도 간호대학 모교방문행사

간호대학 졸업 30, 40, 50, 60주년 기념 모교방문행사가 10월 10일 (목)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와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50주년(69년 졸), 40주년(79년 졸), 30주년(89년 졸) 졸업생 약 60여명을 비롯하여 간호대학 명예교수와 교수, 그리고 동창회 임원 등이 참석하여 졸업생들과 함께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오전에는 30, 40, 50주년 졸업생 동문들을 중심으로 관악캠퍼스 발전기금 감사장 수여식 및 캠퍼스 투어가 진행되었다. 감사장 수여식은 채준 발전기금 상임이사의 환영사로 시작하여, 간호대학 방경숙 학장과 허영 동창회장의 인사말, 감사장 전달식, 단체사진 촬영으로 끝이 났다. 수여식 이후에는 서울대학교 홍보동아리(샤인) 학생의 설명을 들으며 관정도서관 등 학교의 발전된 모습을 둘러보았다.

캠퍼스 투어를 마친 후, 동문들은 연건캠퍼스 간호대학으로 이동하여 동창회에서 마련한 환영오찬으로 오후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이어 간호대학 투어와 단체사진 촬영, 그리고 발전기금 전달식이 이어졌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간호대학 탁성희 교수(동창회 상임이사, 90년 졸)의 사회로 거행되었다.

이번 전달식을 통해 50주년 동문에서 총 5천 1백만 원, 40주년 동문에서 1천 5백만 원, 30주년 동문에서 1천 1백 5십만 원을 간호대학에 기부하였다. 이에 방경숙 학장은 “모교에 항상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시는 동문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국내 제일의 대학에서 나아가 국제적으로도 학문적 성취와 졸업생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을 마친 후, 기수별 동문들이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이어졌다.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동문들의 추억이 담긴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40주년 졸업생들의 아코디언 반주에 맞춰 준비한 합창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30주년 동문들의 춤바댄스를 끝으로 성황리에 모교방문행사가 끝이 났다. 이번 행사는 오랜만에 만난 그리운 동문들과 추억을 나누고 서울대학교 간호인들의 친목과 우의를 다질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간호대학 소식 23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장단 뉴욕동문회 방문

9월 14일(토) 방정숙 학장을 포함한 간호대학 학장단이 미국 뉴욕퀸즈 금강산에서 뉴욕동문회 방문행사를 가졌다. 이날 학장단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한 발전상을 소개하고 간호대학의 관악캠퍼스 건립기금 모금 캠페인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이번 방문행사는 세계로 진출한 동문과 모교의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간호대학 소식 24

환경개선

○ 본관 302호 기본간호학실습준비실 환경 개선

- 일시 : 2019. 06. 19.
- 내용 : 실습준비 자재 및 장비 보관 선반을 모빌랙으로 교체



<Transtion Care Room>

○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사업에 따른 본관 3층 실습실 리모델링공사

- 장소 : 본관 3층, 연구동1층.
- 일시 : 2019. 05. 30. ~ 2019. 06. 30.
- 내용 : 디브리핑 강의실 이전, Transtion Care Room신설, VR,IOT적용실습실 신설, 음압병실 신설, 정신간호실습실 칸막이설치, 연결통로 창호공사, 본관3층 복도 홀딩도어 설치



<VR&IoT Room>



<기본간호학실습실>



<통제실>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1

2019학년도 1학기 영어 글쓰기 세미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영어 글쓰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년 영어 글쓰기 세미나 일정

- 일시 : 2019년 05월 28일 (화) 09:30~12: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103호

주제	연자
Writing in English for Professional Success	Jon Mann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2019년 05월 28일 2019학년도 1학기 영어 글쓰기 세미나)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2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Takako Tsutsui 교수(University of Hyogo)를 초청하여 “Evaluation of intensity of nursing care needs”를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일정

- 날짜 : 2019년 05월 29일 (수)

주제	연자
Evaluation of intensity of nursing care needs	Takako Tsutsui (University of Takako)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3

세미나 개최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Chooza Moon 교수(University of Iowa)를 초청하여 “인지 노화에서 수면의 역할 탐구(Exploring Roles of Sleep in Cognitive Aging)”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외학자 초청 세미나 일정

- 일시 : 2019년 05월 30일 (목) 11:00~13: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502호
- 주최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주제	연자
Exploring Roles of Sleep in Cognitive Aging	Chooza Moon (PhD, RN, Assistant Professor, University of Iowa, College of Nursing)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4

2019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는 간호대학 학부생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연구 활동을 격려하기 위한 연구발표회를 진행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9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간호대학생 연구발표회

- 일시 : 2019년 05월 31일 (금) 13:00~15: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2층 강당

시간	내용	비고
13:00~13:10	심사위원 소개 및 인사말	김혜원 간호과학연구소장 직무대리
13:10~14:10	논문발표(6팀) - 조별 10분 발표	[심사위원] 김혜원 간호과학연구소장 직무대리 서은영 간호대학 교무부학장 허익수 간호연구실습 지도교수
14:10~14:30	심사 총평	심사위원 교수
14:30~14:50	시상 및 기념사진 촬영	대상(1팀), 최우수상(2팀), 우수상(3팀)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5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가 외국인 저명학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일정

- 일시 : 2019년 06월 19일 (수), 06월 20일 (목)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408호
- 주제 : Strategic Use of Structured Literature Reviews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of Research
- 강사 : Patricia E. Hershberger, PhD, RN, FNP, FAAN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Nursing Affiliate Professor,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ollege of Medicine)

시간	주제
06월 19일(수)	
11:00	Arrive at Seoul University
11:30~12:30	Available for Small Group Sessions, Individual Consultations with Students and/or Faculty, and/or Tour of College of Nursing
12:30~12:55	Break
	Lecture: Integrating Literature Reviews and Research in Assisted Reproduction to Develop the Decision-Making Process Model
14:00~14:30	Break for Small Meal
14:30~15:30	Available for Additional Small Group Sessions or Individual Consultations with Students and/or Faculty
15:30~16:55	Return to Hotel for Final Preparation of Workshop & Writing
06월 20일(목)	
10:00	Arrive at Seoul University and Prepare for Workshop
10:30~11:20	Workshop Lecture 1: Introduction to Structured Literature Reviews
11:30~12:20	Workshop Lecture 2: Considerations for the Methods Section
12:30~13:20	Lunch Break
13:30~14:20	Workshop Lecture 3: Components of the Results and Discussion Sections
14:30~15:20	Small Group Work with Workshop Attendees
15:30~16:20	Available for Additional Small Group Sessions or Individual Consultations with Students and/or Faculty
16:30~17:00	Break
17:00~18:30	Dinner with Faculty and/or Students



〈2019년 06월 19일 외국인 저명학자 초청 세미나〉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6

여름방학 통계 특강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통계 특강을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름방학 통계 특강 일정

- 일시 : 2019년 07월 10일 (수) 10:00~17: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전산실 (3층)
- 강사 : 허익수 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시간	주제	내용
10:00~10:50	R 프로그램 강의 1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의 입출력
11:00~11:50	R 프로그램 강의 2	기본적인 자료계산 및 함수 소개
12:00~13:00	점심시간	
13:00~13:50	기초 통계 강의 1	기초 통계량 및 분포 소개
14:00~14:50	기초 통계 강의 2	Z-test, T-test 등 두 그룹 간 평균 비교
15:00~15:50	중급 통계 강의 1	ANOVA, 회귀분석
16:00~16:50	중급 통계 강의 2	범주형 자료 분석, 비모수 자료 분석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7

QS 34위 기념 국제학술대회 Pre-workshop 개최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는 간호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Pre-workshop을 개최했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워크샵 일정

- 일시 : 2019년 7월 12일 (금) 09:00~12: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본관 408호
- 주제 : Stepping up to the Future of Nursing Initiatives

내용	연자
Strategies for training a naive researcher to be competent	Dr. Louise Barriball, King's college, U.K.
Tips to become a world-wide nurse researcher in this revolutionary era	Dr. Patricia D' Antonio University of Pennsylvania, U.S.



〈2019년 07월 12일 QS 34위 기념 국제학술대회 Pre-workshop〉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8

2019년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국내학술대회 개최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에서 “간호과학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Data Science for Nursing Science)” 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 하였다. 자세한 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서울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간호과학을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일정

- 일시 : 2019년 10월 11일 (금) 14:00~18:00
- 장소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 2연구동 2층 강당
- 주최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내용	연자
데이터 사이언스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인제	차상균 (서울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대학원 설립준비 공동위원장)
Big data and data science in nursing	박현애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공공데이터의 제공 현황 및 성과와 미래 방향	권의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실 부연구위원)
EHR Data의 현재 문제점들과 그 대안	신수용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과학원 교수)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만예측 인공 지능 개발	송태민 (삼육대학교 교수)

간호과학연구소 소식 09

2019년 2학기 수요학술세미나 일정 및 주제 안내

2019년 간호과학연구소에서 주최하는 2학기 수요학술세미나가 2019년 9월 4일부터 11월 20일까지 다음과 같은 주제로 다섯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순서	날짜	강사 (소속)	주제
1	09월 4일	오지은 변호사 (법무법인 서호)	간호계가 알아야 할 간호법
2	09월 18일	이재호 소장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모빌리티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의료산업 영향
3	10월 16일	홍윤철 교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미세먼지와 건강
4	11월 06일	정치량 교수 (삼성서울병원 중환자의학)	ICU PADIS guideline (pain, agitation, delirium, immobility and sleep)
5	11월 20일	이영희 교수 (성균관대학교 임상간호대학원)	한국 전문간호사의 현황



〈2019년 2학기 수요학술세미나〉

학부 소식 01

학생회 이야기 - 제28대 학생회 활동

1. 총학생회와의 연계사업 - 생리대 무상배포 사업

교내 봉사단체인 '십사일밥', 친환경 생리대를 반값에 판매하는 사회적 기업인 '29Days',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와 함께 학내 생리대 무상배포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의 위생 건강 개선 및 문화 증진'이라는 후원기업인 29Days측의 비전을 바탕으로 생리대 구매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동시에 사업을 통해 위생 필수품임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격이 높은 생리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용방법은, 비치함에 부착되어 있는 스티커를 확인하시고 중형과 대형 중 필요로 하시는 제품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연건캠퍼스의 경우 간호대학본관 1층 여자휴게실 에어컨 옆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2. 간식사업

지난 1학기, 4월 15일과 16일에는 중간고사 간식사업, 지난 6월 3일에는 기말고사 간식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간단한 먹거리를 제공하였는데, 중간고사에는 서브웨이 샌드위치, 기말고사에는 싸이버거 세트와 비건용 샌드위치를 제공하였습니다. 연건캠퍼스와 관악캠퍼스 모두에 진행되었으며 회차별로 각각 1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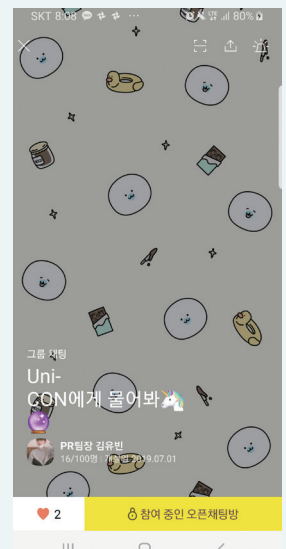
3. "킬미힐미" - 간/수/치/의 연합축제

지난 5월 8일, 관악캠퍼스 버들골&풍산마당에서 간호대·수의대·치의대(학사과정)·의예과 연합축제가 열렸습니다. 연합축제에서는 다양한 부스, 장터, 그리고 공연이 진행되어 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녁 식사로는 통돼지 바베큐를 준비해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아리 공연과 디제잉 공연을 끝으로 연합축제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연합축제로 인해 관악 내 의료계 열 학생들이 친목을 다지는 시간도 가지며 성공적인 축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4. 오픈채팅방

학생회에게 궁금한 점이나 학생회를 통해 제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시 간호대 구성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학생회 소통창구의 취지인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였습니다. 입장은 "Uni-CON에게 물어봐" 카톡방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톡방 안에는 현 학생회 부원들이 실명으로 입장해 있어, 질문에 답변해드립니다. 오픈채팅방 운영시간은 오후 6-12시이며, 그 이외의 시간에는 답변이 느릴 수 있습니다.



5. 개강파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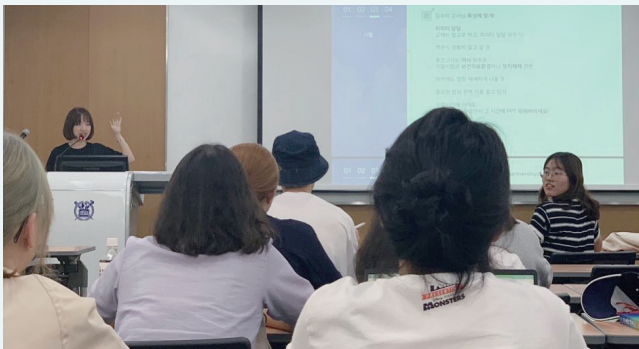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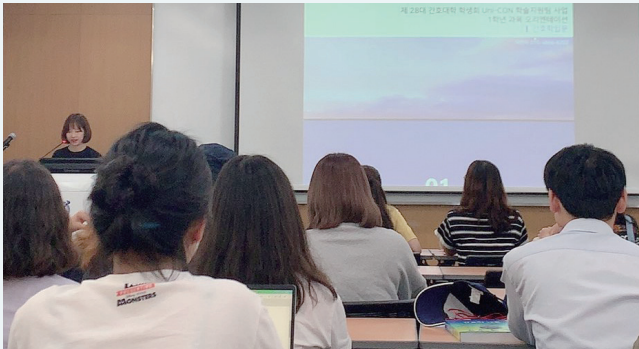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9월 6일에 간호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개강파티가 진행되었습니다.

개강파티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동기들, 그리고 선배들과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학생들끼리 더욱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며, 학생들의 많은 참여로 인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6. 과목 OT

1~3학년을 대상으로 전공과목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과목 OT를 마무리했습니다. 전공과목이 끝난 뒤의 시간을 이용해 효율적으로 OT를 진행했습니다.

선배님들의 경험에 기초한 전공과목 설명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과목 OT 이후에는 피드백을 받아 부족한 자료와 내용을 추가하여 보완했습니다.



7. 국가고시 교재 배부

9월 19일, 국가고시 교재 사업의 최종 배부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전 학기에 선배님들께서 졸업하시면서 기부해주신 국가고시 교재 및 전공 교재를 신청자들 대상으로 배부했습니다. 중고 책 교류를 통해 낭비되는 교재들을 최소화함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이후 남은 교재들은 바자회 형식으로 저렴한 가격에 학생들에게 판매할 계획입니다.

8. 네이버 카페

기존의 간호대 커뮤니티던 스닐싱 사이트를 이전한 간호대학 네이버 카페를 완성하고, 각 학년별로 카페 초대장을 발송했습니다. 간호대학 네이버 카페에서는 학습 자료 공유와 더불어 중고장터, 반별게시판, 홍보게시판 등을 통해 더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호대학 네이버 카페를 활성화하여 학생들 간에 활발한 교류와 자치활동, 단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학부 소식 02

동아리 탐방 - ALKUL(서울대학교 우쿨렐레 동아리)



여러분은 우쿨렐레라는 악기를 알고 계신가요? 우쿨렐레는 흔히 미니기타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기타와는 다르게 4현을 가진 하와이의 전통 악기입니다. 경쾌하게 통통 튀는 소리를 내서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귀여운 악기입니다. 어느새 시작된 2학기에 무료함을 느끼고 신선한 자극을 원한다면 우쿨렐레를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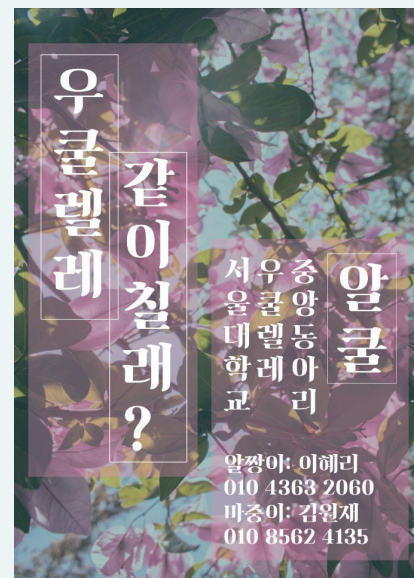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우쿨렐레 동아리 ALKUL은 Aloha와 Ukulele의 준말로 우쿨렐레를 연습하고 연주하며 음악으로 대화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ALKUL은 전공을 불문 음악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매년 공연을 해오고 있으며, 9월 10일에 15회 정기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ALKUL에 들어가기 위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입니다.

기타의 큰 사이즈 때문에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기타의 코드를 잡거나 연주할 때 손가락이 아프셨던 분들, 공연에 한번 서보고 싶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 모두에게 좋은 기회입니다! 학부생, 석사, 박사 그 누구라도 동아리에 가입할 수 있으며, 홍보 포스터에 적혀있는 알짱이나 마중이에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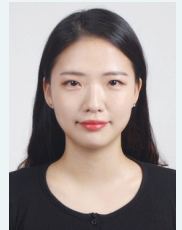
매주 화요일에 두레문예관(67동)에서 정기 연습을 위함 모임이 있고, 연습이 끝난 후에 언제나 즐거운 뒷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 우쿨렐레 축제에 함께 가기도 하고, 한강으로 소풍을 가기도 하고 고기모임도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동아리방도 생겨서 밥모임이 활발해졌습니다.



아름답고 통통 튀는 소리를 들으며 기분이 좋아지며,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놀고 싶은 분들은 참여해주세요! 기타 궁금한 사항은 페이스북에 '알쿨' 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카페(<http://cafe.naver.com/ukuleleinsnu>)로 문의 주세요!

학부 소식 03

학생 이야기 ① - 신입간호사 채용 합격수기



간호대학 16학번 조은애

나이트게일 선서식을 하고난 뒤, 임상실습을 통해 실제 간호환경과 대상자들을 마주하며 보낸 시간이 어언 1년, 취업은 항상 남의 이야기 인줄로만 알았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신규간호사 채용 공고가 하나둘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공인영어시험은 이전에 응시했던 바가 있어 다행히도 성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4학년 1학기 초반까지도 졸업을 유예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자기소개서 구상 등 취업에 대한 기본적 준비가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졸업과 취업을 하고자 뒤늦게 마음먹었을 때에는 당장 자기소개서를 써야 했던 상황인지라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잡고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제가 했던 활동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는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보았습니다.

서울시 NGO 드림컨설턴트에서 주최하는 '드림캠프'에 멘토로 참여했던 경험과 대학생 기획단에서 주최하는 전공 설명회에 참여해 간호학과 설명을 담당했던 경험, 그리고 간호학캠프에 참여해 환경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보조를 담당했던 경험이 떠올랐고, 각 경험에 대한 느낀 점을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이후 의료기관 별 원하는 인재상, 미션과 비전들을 최대한 파악한 뒤, 정리한 경험들과 연결시켜 자기소개서를 써내려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소개서 초안을 작성한 뒤에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기들과 서로 검토하여 피드백을 주고받았고, 이 과정 끝에 수차례의 수정을 거친 최종본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때, 제출을 마친 자기소개서는 이후에 재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출하기 전에 최종본을 별도 저장해 놓기를 권고 드립니다.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나니 필기시험이라는 큰 산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인간호학 1·성인간호학 2·기본간호학 및 실습, 이 세 가지 과목에 중점을 두고 학습하였으나, 실제 시험에서는 아동간호학을 포함한 여러 과목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때문에 전 과목을 요점 정리한 내용, 강의자료 등을 활용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호사 국가시험에 출제되는 과목들을 위주로 중요한 내용들은 평소 꾸준히 정리해 두는 것이 간호사 취업에도, 추후 응시하게 될 간호사 국가시험 준비에도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학우 및 후배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고 있겠지만 학습해야 할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늦어도 3학년 2학기 겨울방학부터는 각 과목을 훑어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합격 후에는 일반적으로 실무진 면접과 경영진 면접이라는 두 개의 면접에 응시하게 됩니다. 보통 실무진 면접의 경우, 간호학적 지식을 확인하는 데에 목적을 둡니다. 때문에 임상실습 시 보았던 수많은 사례들과 스스로 써두었던 사례보고서들을 활용해서 학습하며 이에 대비하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간호진단을 내려야 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간호중재가 적절할 지 정리해 둔 뒤, 이를 활용하여 친구들과 질의응답 연습을 하면 면접 대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영진 면접은 기본적 인성과 직무적합성 확인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어 친구들과 모의면접을 함으로써 면접관들의 질문에 매끄럽게 답변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예상 질문과 답변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정리해서 다양한 질문에 활용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연습을 한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기관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텐데, 제 경험 상 기관에서는 지원자의 성명 순으로 수험번호와 면접일자 배정합니다. 수험번호 순으로 면접일정을 배정받는 과정에서 어떤 학생들은 양 기관의 면접날짜가 겹쳐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때, 정말 아쉽겠지만 본인의 가치관과 각 기관의 특색, 선호하는 인물상을 재고하여 어떤 기관의 면접에 우선 임할지 미리 결정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날짜에 시간은 중복되지 않은 상황이라도 면접 전 대기 등 각 의료기관의 운영 방식과 환경에 따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짧지 않았던 학교생활이 어느덧 끝을 보이고, 간호전문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가는 과정이 결코 쉽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좌절을 할 때도 있고, 중압감에 시달리게 되는 등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전행이 끝날 때까지 '우리 모두가 분명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고 상기하며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학부 소식 04

학생 이야기 ② - UIC summer program을 다녀와서

간호대학 17학번 김채연

2019년 7월 17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4주간 UIC summer program에 우리학교 학생들 9명이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은 UIC(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에서 세계 각국의 간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global health에 대한 다양한 강의를 듣고 부속 병원인 UIH(UI health)에서 2주간 실습해볼 수 있었다.

7월 17일 수요일부터 한 주 동안은 각종 오리엔테이션과 병원 실습을 위한 약물 테스트가 있었다. UIC에 등록하고 학생증을 발급받는 등의 행정적인 절차까지 마무리하니 어느새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바로 다음 주부터는 Global Health Week로, 간호학의 여러 분야에서 저명한 명사들을 초청하여 그 분야에 대해 강의를 들으며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다. 특히 재소자의 건강 문제와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에 대한 강의가 인상 깊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러한 인구집단에 대해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또 아직 병원에 입원하거나 내원하는 환자에 익숙한 우리 학부생에게는 다소 생소한 주제였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여러 인구집단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그 외의 인구집단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중간에 다른 대학교 간호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지역사회를 사정하고 진단하기도 했다.

West Ridge, Boystown, Chinatown 등 여러 지역으로 나가 직접 현장 조사를 하며 환경적 조건이 어떻게 건강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볼 수 있었다.

여러 강의를 들은 후에는 UIH에서 2주간 실습하였는데, 한 병동에서 3시간씩 실습하여 4일 동안 총 8병동을 돌 수 있었다. 아직 실습해보지 못한 L&D(labor&delivery), Mother&Baby, ER, OR, SSU(short stay unit) 등 여러 병동에서 잠시나마 미국 간호사의 간호활동을 볼 수 있었다. UIH의 간호사가 프리셉터가 되어 학부생이 1:1로 따라다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프리셉터로부터 그 병동의 특성과 병동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아직 이론적인 실무를 잘 몰라도 언제든 물어보면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해주었기 때문에 부담없이 미국의 간호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의 간호에 대해 궁금해하는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과 미국의 간호 학교, 간호 실무 현장을 비교할 수 있었다.

우리 학부생이 보기에 미국에서는 간호사 1명이 돌보는 환자의 수가 최대 4명 정도이며 전인 간호를 제공하기 때문에 간호사와 환자가 보다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또한 일반 팀간호사(staff nurse)와 nurse practitioner, 간호조무사 등이 맡은 역할의 경계가 뚜렷하고, 모든 의료진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협력하면서 환자의 건강을 도모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는 인구집단에 대한 강의와 미국 간호사와 보내는 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시카고에서 친구들과 여행도 하고 동문 선배님들을 만나는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모두들 기회가 된다면 미국 UIC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특별한 경험을 해보기를 추천한다.



대학원 소식 01

2019 후기 학위취득자 논문 목록

간호학 석사(9명)

김지연	비폭력대화 기반 분노조절프로그램이 정신병동 입원환자의 자아 존중감, 분노와 공격행동에 미치는 효과
김희정	정보소외계층노인의 디지털정보화수준과 건강만족도의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 조사 - 2017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우소현	성폭력 예방 교육이 여성 만성 정신질환자의 성폭력 지식, 성 태도, 성적 자기주장에 미치는 효과
유민정	교대근무 신규간호사와 경력간호사의 수면의 질과 관련요인 조사연구
유현빈	중환자 가족의 불안과 간호요구도
이보라	일개상급종합병원 수술실 의료인의 환자안전문화에 대한 인식
장은현	소아정신과병동에 입원한 청소년을 위한 분노조절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최지윤	수술실 간호사의 건강증진행위요인, 직무스트레스와 간호 근무환경을 중심으로
한아름	종합병원 입원, 통원치료중인 노인과 가족원의 실버케어 로봇기술에 대한 태도 및 이용의도와 영향요인

간호학 박사(11명)

김영주	사상사고에 노출된 기관사의 경험: 내러티브 탐구
박다인	Sleep Disturbances and metabolic syndrome in shift workers: A systematic review
송민정	그룹홈 거주 아동을 위한 도시숲 기반 건강증진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윤재희	보건교사의 응급간호 역량 도구 개발
윤효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에 근거한 간호요구도 평가와 간호사 배치수준과의 관계 분석
이나윤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 구조모형
이유미	독거노인의 삶의 질 구조모형
이형숙	사용자 요구 기반 원격 협진 로봇 개발 및 사용성 평가
정애리	통원 수술 환자의 재가회복 간호 가이드라인 개발 및 효과 검증
천지영	도시에 거주하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이상 대처경험에 대한 근거이론
최미진	임신성 당뇨병을 가진 한국 여성의 산후 2형 당뇨병 발생 위험 예측

대학원 소식 02

수상실적 및 지원금

지원금	수여자	전공
2019년 Sigma 국제학술대회 참가비 지원	윤영희	성인간호학 박사수료
2019년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 연구과제 공모 (200만원)	류재금	성인간호학 박사수료
2019년 서울대학교 특성별 학문후속 세대 지원(1,000만원)	김가혜	성인간호학 박사수료
	유수영	성인간호학 박사수료
	장상윤	아동간호학 박사과정
2019년 서울대학교 기초학문분야 학문 후속세대 지원 (1,200만원)	유형주	간호정보학 박사수료
2019년 한국기초간호학회 연구비 지원 사업 (100만원)	기지선	성인간호학 박사과정
SNUH 글로벌 인재양성프로그램 - 해외 MBA 프로그램 학비 지원 (약 \$150,000) 및 수학기간 체재비 지원	김씨래	성인간호학 박사수료
수상 실적	수여자	전공
대한성학회 춘계학술대회 최우수 초록상	이영진 김혜원	모성간호학
서울특별시 간호사회 한마음 장학금	박상아	모성간호학 석사과정
	여리사	아동간호학 석사수료
	윤선영	성인간호학 석사과정
	장혜영	모성간호학 박사과정
	조윤정	성인간호학 석사과정

대학원 소식 03

교수 임용

본교 대학원생 중 2019년 하반기 교수 임용된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임용 대학	임용 대상자	전공 (담당 교과목)
동아대학교	김찬희	정신간호학
부산가톨릭대학교	이나운	정신간호학
세명대학교	홍경진	간호학
초당대학교	최미진	모성, 관리

대학원 소식 04

국제학술대회 참석명단

본교 대학원생들이 참여한 국제학술대회 현황은 다음과 같다.

The First Cochrane Hong Kong Symposium (2019.05.23.~24.)		
Causes and control measures of outbreak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A Systematic Review (포스터 발표)	박연환, 이정아, 이성현, 이지영, 이민혜	
Incidence of and risk factors for Infections in a nursing home in South Korea (포스터 발표)	이민혜, 박연환, 이유미, 노은영	
Experience of health care workers regarding the use of the evidence-based guideline for nursing home's infection control in Korea (ENIK)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acilitators vs barriers (포스터 발표)	이유미, 박연환, 이민혜, 노은영	
The effect of an evidence-based infection prevention and control program on knowledge and self-reported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for nursing home staffs (포스터 발표)	류소임, 박연환, 이민혜, 이유미, 노은영	
Knowledge and performance of infection control among nursing home staffs in South Korea (포스터 발표)	노은영, 박연환, 이민혜, 이유미	
Sigma's 30th International Nursing Research Congress (2019.07.25.~29.)		
A qualitative study on sleep of infants and their mothers in South Korea (포스터 발표)	채선미, 여지영, 정나리	
A Comparative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Successful Aging of Cancer Patients and Survivors (포스터 발표)	윤영희	
Sex differences in awareness of preventive health behaviors for healthy pregnancy among adolescents using the TPB (포스터 발표)	김혜원, 강샘이, 이영진, 김서연	
MEDINFO 2019 : The 17th World Congress on Medical and Health Informatics (2019.08.25.~30.)		
Development of a Mobile Learning System for Nurses' Cultural Competency Training (포스터 발표)	성수미, 박현애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a Prototype CDSS for Fall Prevention (포스터 발표)	정혜실, 박현애	
The 4th End-of-Life Care International Symposium End-of-Life Care (EOLC) Competency for Nurses Work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LTCFs)		
Current EOLC situation in Asian LTCFs and EOLC competency for nurses Reports from South Korea (구두 발표)	정운선, 탁성희	

대학원 소식 05

대학원생 이야기 ① - 석박사통합과정 졸업생 수기

지역사회간호학 박사졸업생 정애리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03학번, 석박통합과정 12학번으로 올해 가을 박사학위 졸업을 하게 된 정애리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망설여졌지만 학위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나의 이야기가 힘찬 응원으로 다가갈 바라는 마음으로 적어 나갑니다.

전 2003년 간호학과에 입학하여 간호학을 배우다가 언론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이 생겨 언론정보학과를 복수전공 했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즐거워 교직이수를 선택했습니다. 학부를 5년 다니며 동기들과 떨어져 홀로 수업을 듣는 것, 매 학기 계절 학기로 교육학 수업을 듣는 것이 힘들었지만 내가 흥미를 가지는 수업들을 듣는다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학부를 졸업하고 2008년 삼성서울병원에 입사하였고 수술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제일 많이 경험했던 수술은 이식과 혈관 수술이었고, 죽어가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장기로 새 생명을 부여하는 일은 보람있지만, 이브닝 출근을 하여 야근 후 다음날 아침 7시에 퇴근하며 10시간 넘게 서서 긴장감 속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몸은 너무 힘들고 수술 중에 화장실도 못 가 방광염과 장염을 달고 살았으며 수술 하다가 CPR 이라도 겪는 날이면 내 영혼까지 날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서도 그만 두지 않았던 건 내가 하는 간호가 환자를 살리는 간호이며,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직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적인 간호를 배우고 싶어 대학원을 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추천하고 싶은 건 전문적인 학문과 연구도 있지만, 이곳에서 만났던 다양한 전공의 능력자들이었습니다. 임상을 경험하고 다시 모인 학생들은 모두 학문에 대한 열의나 목표 의식과 더불어 진심으로 간호를 사랑하고, 환자를 생각하며 고민하며 연구 주제를 탐색했습니다. 단지 머리로만 느끼는 것이 아닌 경험을 통해 충분히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간호 학문에 발을 디딘 대학원 동료, 선배들을 보면서 병원 일을 힘들게만 느꼈던 내 자신을 반성하고, 직업에 대해서 더 큰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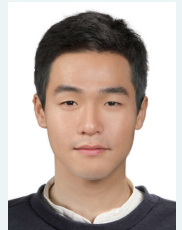
일과 병행하며 착실하게 학위 과정을 마치고 수료를 하였지만, 논문을 쓰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수료하고 나면 금방 졸업을 할 줄 알았지만 논문을 계획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논문을 완성하는 데 까지 하나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과 육아까지 병행하며 학위 논문을 쓰느라 시간은 흘러만 갔습니다. 그렇게 2012년 대학원에 입학했던 저는 2019년에 7년 만에 늦은 나이에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도 교수님이신 이인숙 교수님의 가르침과 부족한 논문을 정성을 다해 다듬어 주시던 김성재, 서은영, 윤주영, 고영 교수님이 없었다면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어렸을 때는 30대에는 ‘而立(이립)’으로 모든 기반이 닦여 있을 줄 알았는데, 40대가 가까워지는 지금도 전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주변에서 어떻게 일과 육아와 논문을 병행하냐며 슈퍼 우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수없이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나를 믿어주는 가족들, 열정적으로 지도해주시는 교수님, 학교 다닌다고 배려해주는 부서장님과 부서원들의 지지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학부 시절 언론정보학과라는 생뚱맞은 전공을 복수전공 하겠다는 저에게 학부 지도 교수님이시던 박현에 교수님은 내가 20대에 컴퓨터에 관심 있다고 할 때도 다들 그렇게 반응했다며 용기를 주셨고, 졸업하고 나니 허무하다는 저에게 삶이 불안정하고 미래가 막막할 때 가장 큰 기회가 온다며 이인숙 교수님은 항상 다잡아 주셨고, 박사는 사회에 기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라며 책임감을 강조하셨습니다. ‘connecting the dots’ 라는 스티브 잡스의 연설처럼 매순간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성실하게 내가 찍어온 점들이 이어져 언젠가는 미래와 연결될 거란 희망으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훌륭한 연구자로, 교육자로, 임상전문가로 후배들을 가르치며, 노력하겠습니다.



대학원 소식 06

대학원생 이야기 ② -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발 후기



간호정보학전공 유형주

안녕하세요, 김정은 교수님 지도하에 간호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유형주입니다.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발 관련 수기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독자들에게 낯설게 느껴질 주제일 텐데 하는 노파심에 조금 망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소중한 기회를 얻어 연구와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학우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펜을 듭니다.

2015학년도 석·박사통합과정생으로 입학한 뒤, 초반에는 간호사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저는 많은 체력적 어려움을 겪었고, 또 알면 알수록 더 빠져들게 하는 간호정보학의 매력에, 입학 후 1년 반 만에 사직을 하고 전일제 학생이 되었습니다.

전일제 학생으로서 교수님 연구를 보조하며 이것저것 알아가던 중, 우연히 기초학문후속세대 장학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지도하에 다양한 연구를 하고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기쁘기도 하였지만, 사직과 개인적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였습니다. 장학생 지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러 처음 교수님을 찾아뵈었을 때, 웬지 모르게 나쁜 짓을 하고 혼나러 가는 양 가슴이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너무 나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걱정들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교수님을 뵈니 많은 응원과 칭찬, 조언을 해주셨고, 이에 용기를 낸 저는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발제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계획서는 이 연구주제에 어떤 계기로 관심을 두게 되었는지, 그리고 사직, 연구와 학업 병행으로 인해 제가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솔하게 작성하였습니다. 간호연구와 이론수업과정 등에서 작성해 왔던 연구계획서들을 참고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 작성된 계획서와 신청서를 가지고 지도교수님께 찾아가 추천서를 부탁드렸습니다.

하늘에 감사하게도 멋쟁이 지도교수님(a.k.a Jeongeun Kim)께서 역시나 멋지게 추천서를 작성해 주신 덕에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지금까지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발제도는 학업장려금과 생활비, 자료구입비 등을 포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학업의 욕을 고취시키고, 학업성취능력을 향상시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근거로 기초학문분야 적합성, 발전 기여 가능성, 학문적 수월성, 강의조교 활동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장학생을 선발합니다. 프로그램은 A·B·C로 나뉘며, 석·박사 여부와 재학 및 수료 여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다르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018학년도 기준, A형은 박사과정 재학생, B형은 박사과정 수료생, C형은 석사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각 유형별 지원 금액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1년이며, 재 추천을 거쳐 최대 2-3년간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발된 학생은 학기별로 학업진척보고서 또는 논문 작성 경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강의조교(TA) 역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타 장학금 및 연구비와는 이중 수혜가 어려우니 관심이 있는 학우 여러분은 이 부분을 유념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지원제도 덕분에 간호대상자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로봇 개발, 병원이라는 낯선 환경에 어린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임치료방법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여 학술대회에서 이 결과를 공유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학업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기초학문분야 학문후속세대 선발제도뿐만 아니라 각 의료기관 및 단체에서 생각보다 다양한 대학원생 대상 장학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니 혹시나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 문을 두드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니까요.

동창회 소식 01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

3월 26일 오후 4시부터 간호대학 강당에서 동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신입회원 환영식이 있었다.



1부에서는 임난영 회장의 개회사와 방경숙학장의 축사에 이어서 2019년도 제1학기 10명의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다. 이어서 신입회원 환영식에서 주나영(19졸)이 동창회장상 수여 후 인사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후 학교에서 준비한 간호대학홍보 동영상을 관람하였다.

2부 행사에서는 동창회장 선출로 허영(74졸) 동문이 참석자 전원의 동의로 회장이 되었다. 임난영 회장의 동창회와 교육연구재단의 사업 보고에 이어서 허영신임회장의 인사말과 함께 동창회와 교육연구재단의 사업계획 보고와 예결산심의회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안전심의회에서 동창회 문화활동 지원대상을 추첨을 통해 6기를 선정하였다.

3부에서는 이명선(75졸) 교수님의 '간호와 리더십' 강의에 이어 75졸 동문의 오카리나연주와 훌라춤 공연으로 행사의 마지막을 멋지게 장식했다.

동창회 소식 02

동창의 날

6월 27일 오후 4시 간호대강당에서 열린 동창의 날 행사는 올해부터 동창 누구나 참석 할 수 있는 참여와 나눔의 취지를 돈독하게 하고자 대표자의 날에서 동창의 날로 행사명을 바꾸고 처음 갖게 된 행사였다.

허영 동창회장의 적극적인 리더십으로 각 동기들이 어떻게 모여 무슨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각 기대표가 대신 알리기도 하며 장기자랑도 선보이며 화기애애한 덕담들도 주고받았다. 앞으로 기별 모임이나 지역별 모임을 활성화하여 서로 본받고 즐겁게 보람된 삶을 살아 갈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63졸엽 대선배님 7분이 참여하시어 여전이 고운 목소리로 '만남' 노래로 기활동 나눔의 시간이 열렸다. 동창회 공연 담당기인 75졸은 12명 참석으로 즉석 합창을 멋진 피아노 반주에 보여주었으며 81졸 동문은 고운 중창을 74졸 이금라의 '쫄레꽃' 하모니카 연주에 동창들은 핸드폰으로 노래가사를 보며 합창을 하였다.

이후 식사를 하며 삼삼오오 추억의 여행과 함께 동기들과 선후배 소식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63졸이신 동창회장을 지내신 유숙자 선배님의 글을 동창회 모임의 큰 뜻으로 올려본다.

'늘 동문회 날 참석하신 많은 후배들을 보며 선배로서 너무 흐뭇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먼저 각기가 단결하여 자주 만나고 동문들이 힘을 합하면 무슨 일이든 다 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화이든 모이기를 힘쓰면 힘이 됩니다.'



동창회 소식 03

동창회 교육연구재단장학금 수여현황

〈2019년도 2학기 장학금 670만원 지급〉

순번	장학금명	장학금액	성명	과정
1	최애옥(50졸)장학금	1,000,000	장소영	박사
2	임난영(71졸)장학금	1,000,000	최선아	4학년
3	이광자(68졸)장학금	1,000,000	나성실	박사
4	동창회 장학금	900,000	박준희	4학년
5	이윤경(69졸)장학금	700,000	이한별	4학년
6	김남련(56졸)장학금	500,000	김은하	석사
7	이귀향 장학금	400,000	최임영	석사
8	이정자(63졸)장학금	400,000	함현정	석사
9	이애주(69졸)장학금	400,000	박세은	3학년
10	이선옥(73졸)장학금	400,000	김승하	3학년

간호대학 발전기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간 : 2019년 3월 1일 ~ 2019년 8월 31일

학사동문 및 간호대학 교수			
MK헤리티지(79졸)	간호대학 1975 졸업동기	강자현 교수	강현숙(69졸)
강혜순(69졸)	공은희(95졸)	김경희(69졸)	김기희(69졸)
김문숙(91졸)	김성재 교수(81졸)	김수호 박경희(74졸)	김씨래(11졸)
김영아(88졸)	김정은 교수(77졸)	김향(95졸)	김현희(63졸)
김혜원 교수(85졸)	박연환 교수(91졸)	박영숙 명예교수(69졸)	박영임(77졸)
박은준(93졸)	박현옥(78졸)	박희남(69졸)	방경숙 교수(85졸)
변영자(69졸)	서은영 교수(94졸)	신순자(89졸)	우효남(02졸)
윤주영 교수(02졸)	윤효정(08졸)	이경숙 교수(04졸)	이애주(69졸)
이예숙(69졸)	이옥무(69졸)	이인숙 명예교수(77졸)	이지혜(05졸)
이호진(78졸)	이희석(69졸)	임동숙(69졸)	임은옥(89졸)
장선주 교수(02졸)	전영희(78졸)	채선미 교수	최숙규(69졸)
최영희(69졸)	탁성희 교수(90졸)	허익수 교수	황보영 교수(96졸)
황인주(00졸)			

기타	
방기봉	(주)코디스미디어
한국특수메탈공업(주)	한국학술정보(주)

발전기금 안내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은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들의 **교육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연구시설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발전기금 참여방법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신용카드, CMS** 등을 통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참여신청서는 간호대학 홈페이지 또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통장 입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고 간호대학 문의처(02-740-8802)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 079-17-065324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 신한 100-023-643537 서울대발전기금(간호대학)

문의처 : 간호대학 02-740-8802

* 유증 및 부동산 등 기타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월 만원이면 선한 인재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후원금 전액은
선한 인재 장학금으로 쓰입니다.

매월 30만원 X *저소득층 학생 약 850명에게 지급

*기초 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계소득 1분위 이하 학생



지금 바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 1666-2930

www.snu.or.kr 에서 내려받은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휴대폰으로 찍어 보내주시거나 참여 의사를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문의 : 02-880-8004)